

2025 11
제250호



대덕라이프 QR



대덕구카카오톡 채널 QR

대덕 라이프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제24회 대청호마라톤대회 전경



대덕 라이프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대덕라이프 제호 서체 : 글고운 캘리그래피 박진희 作

- 03 구정소식
- 05 십자말풀이
- 06 대덕구 부서를 소개합니다
- 07 대덕구 맛집을 찾아서
- 08 열린의정
- 10 [대덕구기관장협의회]김선수 북대전세무서장
- 11 [단체 인터뷰] 대전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대덕구지회
- 12 대덕톡톡

‘탄소중립 실현’

대덕 친환경 프로그램 운영

이달까지 재활용·녹색 생활 주제 진행
대덕구민 누구나 무료 참여 가능

바르게살기운동 대전대덕구협의회 ‘바른생활·안전문화 캠페인’ 전개

홍보물 배부하며 주민 참여 독려
법질서 준수·상호 존중 확산

법2동 적십자봉사회, 제빵 봉사로 ‘뽕뽕’한 이웃사랑 실천

회원 10여 명, 빵 200개 직접 만들어
취약계층·홀몸어르신에 전달

대한전기숙련기능인협회, 대덕구 지역아동센터 전기 안전 손봤다

16곳 대상 노후시설 보수·분전함·차단기 교체 등
설비 점검·수리 봉사 나서

“장(醬)으로 잇는 정(情)”

대덕구 여성단체협의회, 19년째 전통 장 나눔

홀몸 어르신·한부모 가정·다문화가정 등
70가구에 된장·간장 전달

[사]대덕구자원봉사센터, APEC 정상회의 홍보 자원봉사 활동 전개

지역 자원봉사자 70명 참여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연계 ‘볼런투어’ 운영

한국농아인협회 대전대덕구지회 ‘수어 문화체험’

경기 화담숲·이천 도자기마을서 자연·도에 체험
수어로 공감 넓혀

발행인 대덕구청장
편집인 미디어홍보과장
발행처 미디어홍보과(TEL:608-6606)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홈페이지 www.daedeok.go.kr
발행일 2025년 11월 3일(제250호)

거주 불명 어르신 기초연금 수급 발굴·신청 지원

내달 5일까지...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도 병행

대덕구가 12월 5일까지 만 65세 이상 거주 불명 등록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신규 수급 발굴·신청을 지원한다.

발굴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불명 등록 기간이 최근 5년 이내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 미수급자이다. 또, 연락처가 확인되거나 소재가 파악되는 경우 기간이 5년을 초과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구는 국민연금공단 북대전지사와 협력해 △전화 상담 △사전 조사 △현장 방문 △신청 대행 등 단계별 절차를 운영, 연락이 닿는 대상부터 신속히 안내한다.

아울러 어르신 본인이 시간과 장소를 직접 지정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담당 직원을 파견해 비공개로 상담, 신청하는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도 병행한다.

한편, 최종 수급 여부는 대덕구와 국민연금공단 북대전지사의 사전 및 현장 조사를 거쳐 내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공감과 소통... 학부모 토크 공감소 운영

오는 15일 한남대 메이커스페이스에서 자녀 공감 소통 프로그램 진행
지역 거주·재학 초등생 자녀 가족 대상... 대덕혁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서 모집
‘도파민 가족’ 이은경 작가 특강·가족 명랑운동회·체험 행사 등 개최

대덕구는 오는 11월 15일 한남대학교 메이커스페이스 및 제2체육관에서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공감 소통 프로그램 ‘학부모 토크 공감소’를 진행한다.

먼저 1부 특강에서는 ‘도파민 가족’ 저자 이은경 작가가 강사로 나와 ‘도파민 가족을 위한 현명한 부모 역할’을 주제로 자녀와의 갈등 해결과 대화법에 대한 강연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한다.

또, 같은 시간 제2체육관에서는 점핑바, 컵 쌓기, 블록 놀이 등 자녀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행사가 펼쳐진다.

이어 2부에서는 가족 명랑 운동회와 뉴스포츠(콘솔 게임) 대회를 통해 가족 간 역할 나눔과 협력 등 가족 화합 프로그램이 열릴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지역 거주 또는 재학 중인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가족으로, 가족별 3명 이상 20팀을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은 대덕혁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학부모 토크 공감소 프로그램

학부모 토크 공감소

운영일시 2025. 11. 15. (토) 10:00~14:30

모집대상 | 대덕구 거주 및 재학 중인 자녀(초등학생)를 둔 학부모 가족

모집인원 | 총 20팀(80명) 이내 / 가족별(3명 이상) 선착순

운영장소 | 한남대학교 메이커스페이스 및 제2체육관

신청방법 | 대덕혁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신청

내 용 | 부모 특강: 이은경 작가의 '도파민 가족을 위한 현명한 부모의 역할' 가족 화합 프로그램: 온 가족이 즐기는 '가족명랑운동회'

문의사항 | 대덕구 인구정책과 ☎042-608-6374

이은경

■ 나는 다정한 관찰자가 되기로 했다.
‘조용 매달 공부의 힘’
‘조용 매달 습관의 힘’ 저자
■ ‘습관의 힘’ ‘조용 매달 공부의 힘’ ‘조용 매달 습관의 힘’
■ ‘이은경에게 물어보는 습관’ ‘이은경에게 물어보는 습관’
■ ‘이은경에게 물어보는 습관’ ‘이은경에게 물어보는 습관’

신청 바로가기

취약계층 대상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12월 5일까지 온라인·구청 방문 접수...가구당 60만원 설치 지원

대덕구가 12월 5일까지 저소득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원 대상은 올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 또는 교체를 희망하는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다.

구는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60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 또는 교체해 줄 방침이다.

신청 접수는 온라인에서는 에코스퀘어(환경기술산업원스톱서비스)홈페이지에서 우편·방문 신청은 대덕구 환경과에서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 환경과(☎042-608-6864)로 문의하면 된다.

“하루 만 보 걷기로 근감소증 예방 실천하세요”

‘건강 UP 챌린지’ 개최... 이달 말까지 3대 미션 인증해야

대덕구가 주민의 일상 속 건강 습관을 확산하기 위해 ‘하루 만 보 걷기 & 근감소증 예방 건강 UP 챌린지’를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참여 대상은 대덕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 직장인도 포함된다.

모든 인증과 안내는 ‘대덕구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카카오톡 채널의 1:1 대화방을 통해 이뤄진다.

이번 챌린지는 세 가지 일상 실천 과제로 구성된다. 먼저, 하루 동안 만 보 걷기를 실천하고 만 보 달성 화면을 촬영해 카카오톡 1:1 대화방에 인증한다. 삼성헬스나 워크온 등 일반적인 걷기 앱의 기록 화면이면 인정된다.

두 번째로 근력운동 실천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공원 운동 기구를 이용한 장면이나 집에서 진행한 홈트레이닝 모습 등 일상적인 근력운동이라면 종류에 제한이 없다.

마지막으로 단백질 식사 실천을 인증한다. 고기·생선·달걀·콩류 등 단백질 식품이 포함된 한 끼를 촬영해 게재하면 참여가 인정된다.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실시해 총 50명에게 챌린지 달성 기념품을 제공한다. 월별 미션을 성실히 수행할수록 당첨 기회가 높아지며, 선정 결과는 12월 중 개별 통보된다.

동일 사진의 중복 제출은 인정되지 않으며, 모든 인증은 본인이 직접 수행한 내용이어야 한다. 하루에 여러 차례 인증을 올릴 수는 있지만, 같은 날 동일 항목을 반복해 올리는 중복 인증은 불인정 된다. 운영 세부 기준과 예시는 카카오톡 채널 공지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구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걷기 습관을 정착시키고, 근감소증 예방과 균형 잡힌 식사 문화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042-608-4475)로 문의하면 된다.

저소득층 난방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추진

단열·창호·보일러 교체 등 지원

대덕구가 저소득층의 난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2025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에너지 사용이 비효율적인 취약계층 가구의 난방 효율을 높여 에너지비 절감과 주거환경 개선을 돕기 위한 것으로, 한국에너지재단과 협력해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가구이며, 이 중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가구(수선유지급 대상)와 공공임대

주택(매입임대·국민임대 등)은 제외된다. 단, 전세 임대 가구는 지원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단열공사 △창호 및 바닥(건식 패널) 시공 △보일러(가스·기름) 교체 및 설치 등으로, 가구별 주거환경을 진단해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절차와 구비서류는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1670-765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대덕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에너지 사용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이 더 따뜻하고 쾌적하게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핑크빛 물결 물든 대전 대덕구 ‘핑크물리 하천생태공원’

산책로·포토존·휴식공간 갖춘 도심 속 자연정원...
가을 나들이 명소로 인기



대덕구 석봉동 ‘핑크물리 하천생태공원’이 핑크빛 물결로 절정을 맞았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공원 일대에 풍성하게 피어나는 핑크물리를 보기 위해 가족·연인 단위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곤 합니다.

공원은 비교적 넓게 조성돼 종합 안내도를 확인하며 산책하면 좋습니다. 아이들과 동행한다면 화장실 위치를 미리 확인해 두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공원 곳곳에는 벤치와 정자가 마련돼 있어 잠시 쉬어가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기에도 제격입니다.

무성한 핑크물리는 어디에서나 ‘인생샷’을 남기기 좋은 배경을 제공합니다. 청명한 가을 날씨와 어우러져 데이트 코스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또, 높낮이가 다른 식재 구간을 따라 걸으면 입체적인 풍경이 펼쳐져 아이들 키에 맞춘 다양한 구도 촬영도 가능합니다.

공원은 핑크물리 외에도 계절 꽃과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자연을 가까이 누릴 수 있어 주민들의 산책 코스로 사랑받고 있으며, 아이들에게는 살아 있는 생태 학습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건다 보면 핑크물리에 대한 안내 표지와 해설도 만나볼 수 있어, 사진을 넘어 식물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 가을, 핑크물리 하천생태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정취를 만끽해 보는 건 어떨까요?

2025 대덕구민 기자단 최경근 기자

다양한 수생식물이 있는 삼정동 생태습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지난 2014년, 대청호 수질 보전 위해 생태습지형 저감시설로 조성
대청호 오백리길과 맞닿아 트레킹 명소 각광... ‘생태계 복원’ 기여도



대덕구 삼정동 일원에 조성된 ‘삼정동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가을 정취와 함께 생태학습·산책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청호 수질 보전을 위해 지난 2014년 11월, 약 9994㎡ 규모의 생태습지형 저감시설로 조성됐습니다.

비점오염물질은 농지·도로·공사장 등 불특정 지점에서 빗물과 함께 유입되는 오염물로, 비료·농약 잔류물, 가축 배설물, 대기오염물질, 노면 퇴적물 등이 포함됩니다. 시설은 이러한 오염원을 모아 단계적 정화 과정을 거쳐 방류하는 자정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삼정동 비점오염 저감시설에는 ‘침강지-깊은 습지-지표흐름습지-생태 여과지-방류’ 순으로 이어지는 정화 공정이 마련돼 있으며, 두 곳의 침강지를 통해 지방도 및 농경수로를 따라 유입되는 농약, 쓰레기 등 입자성 오염원을 먼저 가라앉힌다고 합니다. 이어 식재된 다양한 수생식물의 정화 능력을 활용해 녹조 방지와 식수원 수질 개선에 기여합니다.

습지 주변으로는 데크로드와 산책로, 쉼터(벤치·정자), 소규모 운동 시설이 조성돼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도 편안히 머물 수 있습니다. 특히 노랑꽃창포·꽃창포·갈대·물억새 등 수생·습지식물이 사계절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어, 아이들에게는 그야말로 살아 있는 생태학습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산책로는 ‘대청호 오백리길 1구간(두메마을길)’과 맞닿아 트레킹 동선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삼정동 생태공원에서 이현동 거대억새습지까지 이어지는 대덕구 수변생태벨트의 핵심 거점으로,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에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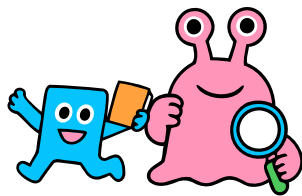
가을이면 갈대와 물억새가 장관을 이루는, 물억새 단지 앞 잔디밭과 오두막, 곳곳의 쉼터는 한적한 계절 산책의 즐거움을 더하는 대덕구 삼정동 비점오염 저감시설입니다.



2025 대덕구민 기자단 이상문 기자

퀴즈풀고 선물받고!!

QUIZ TIME



접수 기간 2025년 11월 1일(토) 오전 9시 ~ 11월 16일(일) 오후 11시 30분까지

참여 방법 십자말풀이 정답을 작성하여 제출(1인 1회)

당첨자 발표 개별 문자 안내

정답을 맞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10명을 선정해 기프티콘을 선물해 드립니다.

※ 정답 제출 이후에는 답안 수정이 불가하오니, 제출 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③	③
①								
			②	②				
⑤								
		④						
		④						
						⑤		

십자 말풀이

가로퀴즈



- 대한민국 충청권의 중남부에 자리한 광역시로, 대덕구가 속해있는 광역시의 이름은?
- 훈민정음(訓民正音) 곧 오늘의 한글을 창제해서 세상에 퍼낸 것을 기념하고, 우리 글자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은?
- 명사, 24절기 중 열아홉 번째 절기. 상강(霜降)과 소설(小雪) 사이에 들며, 이날부터 겨울이 시작된다고 하여 ○○이라고 한다.
- 명사, 거리의 조명이나 교통의 안전, 또는 미관(美觀) 따위를 위하여 길가를 따라 설치해 놓은 등.
- 대덕구의 행정동으로, 경부선, 호남선 철도의 분기점이며, 대덕구청과 오정농수산물시장, 그리고 한남대학교가 소재해 있는 동의 이름은?

세로퀴즈



- 대덕구 대청댐 인근에 조성된 공원.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보건휴양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1998년부터 2011년까지 143,386㎡에 조성한 자연생태공원으로 현장학습, 가족나들이, 기업 및 단체의 야유회 등 친목 도모의 공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전국의 명소는?
- 명사, 1. 글씨를 써 놓은 모양. 2. 붓글씨에서 글씨를 쓰는 일정한 격식이나 양식. 한자에서 해서·행서·초서·예서·전서, 한글에서 궁체 따위를 이른다.
예) ○○○가 예쁘다.
- 조선 효종 때 대사헌, 이조판서, 병조판서를 지낸 송준길(1606~1672) 선생의 별당(別堂). 송촌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선시대 건축물로 1963년 대한민국 보물 제209호로 지정됐다.
- 명사, 거리의 미관(美觀)과 국민 보건 따위를 위하여 길을 따라 줄지어 심은 나무.
예) 여름에 잎이 무성한 ○○○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준다.
- 1994년 개원해 대덕구의 역사문화자원을 수집·연구·보관하기 위한 '대덕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를 발간하고, 대덕백일장, 동춘당 전국 회회대회, 대덕문화예술교실 등 대덕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알리고, 지역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의 이름은?

대덕라이프 십자말풀이 이벤트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취득하며, 수집된 개인 정보는 당첨 및 선정 확인 등 이벤트 운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 됩니다.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에 동의하실 경우에만 참여 부탁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이벤트 당첨 및 선정 확인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벤트가 종료된 후 1년간 보관 후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할 권리 : 이벤트 당첨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당첨이 취소됩니다.
- 상품 받으실 분의 개인정보 오류나 부재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 : 대덕구 미디어홍보과(☎608-6606)



정답제출하기



대덕구 부서를 소개합니다



운영지원과

자치행정과

공감민원과

행정자치국은 대덕구의 살림과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로, 운영지원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공감민원과 등 총 5개 과(課)로 구성돼 있다.

특히, 공무원 인사 및 복무 관리, 주민 자치활동 지원 및 주민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 주도, 주요 민원서류 발급·관리 등 행정서비스 제공, 대덕구 재정 운영에 필수적인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업무, 주민 소통, 기타 주민 생활 편의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운영지원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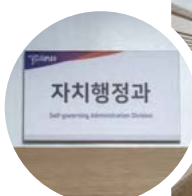
운영지원과는 행정자치국 주무과로, 구정 행정 전반을 지원하고 공무원의 인사·복무·후생 복지 업무를 담당한다. 비서실, 총무팀, 인사팀, 역량개발팀, 회계팀, 청사관리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의전, 문서 관리, 보안, 예산, 청사 관리 등 구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총무, 인사, 재무 등 다양한 행정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체계를 총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동주민센터 행정 전반을 지도·관리하는 것을 시작으로 주민자치회 운영과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 협력 프로그램, 자원봉사센터 관리 등을 통해 주민 참여를 활성화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또, 행정구역의 경계 조정 및 명칭 변경, 선거 관리 및 주민 투표 업무, 시구협력회의 등 자치 행정 정책 조정, 지방 행정의 동향 및 여론 관리, 기타 공공자원 공유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팀 △주민소통팀 △자치협력팀 △지역상생팀 등 총 4개팀으로 구성돼 있다.



공감민원과

공감민원과는 민원여권팀, 기록물팀, 가족관계등록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 여권 발급, 납세 증명서 등 다양한 행정 증명서 발급은 물론 각종 민원과 행정 절차에 대한 상담 및 안내, 구청 방문 민원인을 위한 편의시설 운영 및 안내, 민원 관련 문서의 접수·통제·발송·보전 관리 등 기록,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신속·공정·친절한 민원 처리를 통해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 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 편의를 증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강원도의 향이 물씬

목상동 속초메밀향막국수



막국수의 본고장인 강원도 속초식 메밀막국수와 오징어순대를 대전에서 맛볼 수 있는 음식점이 있다. 바로 대덕구 목상동 을미기공원 인근에 있는 속초메밀향막국수(대표 탁청자)다.

속초는 예로부터 인접한 함경도 음식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대표적인 것이 명태회가 고명처럼 얹힌 메밀명태회막국수, 오징어순대이며, 속초메밀향막국수의 대표 메뉴이기도 하다.

이 집의 메밀막국수의 가장 큰 차별화 포인트는 주문과 동시에 직접 바로 면을 뽑아내 더욱더 쫄깃하고 생생한 면 맛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약간 거친 겉질 성분이 적당히 포함된 메밀을 밀가루와 황금비율로 배합한 뒤 반죽해 적당히 숙성한 후 삶아내고 있다. 다소 거친듯하지만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나는 메밀면을 만들 수 있다는 탁청자 대표만의 방식이다.

육수 또한 과일, 채소, 해초를 넣어 직접 끓인 육수를 동치미와 적절히 배합해 매콤, 새콤, 달콤, 시원한 국물 맛을 낸다.

말 그대로 고소함과 쫄깃함 그리고 시원하고 개운한 국물맛 등 기본에 충실한 속초식 메밀막국수의 진수를 선보이는 음식점이 바로 이 집이다. 특히, 메밀명태회막국수는 쫄깃쫄깃한 명태회가 곁들여지며 감칠맛이 넘쳐나며, 곁들여 나오는 열무김치와 쌈무도 아삭한 식감이 메밀막국수와 찰떡궁합을 이룬다.

속초메밀향막국수의 또 하나의 대표 메뉴는 오징어순대다. 아바이순대의 일종인 오징어순대는 오징어 안에 찹쌀, 배추, 우거지, 배춧잎 등을 소로 넣고 찌낸 것을 먹기 좋게 썰어 다시 달걀옷을 입혀 기름에 구워낸 것이다. 이 역시 함경도 영향을 받은 음식으로 돼지 대창을 못 구한 사람들이 오징어 몸통에 찹쌀 등의 소를 넣고 만들어 먹었다고 한다. 이 집에서는 당면과 채소 등을 소로 넣고 달걀옷을 한 번 더 입혀서 구워냄으로써 훨씬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이 집은 메밀막국수가 계절 음식인 만큼 음식점 영업시간과 메뉴가 바뀌는 것이 특징이다. 오후 3시까지만 운영하는 겨울철 메뉴로는 메밀온막국수, 메밀떡만둣국, 감자수제비, 들깨 수제비, 감자옹심이 등 강원도 대표 음식들을 선보이고 있다.

메밀 반죽, 열무김치 담그기 등 자기 손으로 직접 만들어야 직성이 풀린다는 탁청자 대표의 성실함과 정성 때문일까? 속초메밀향막국수는 지난 2023년 한국소비자평가(KCA) 주관 한국소비자산업평가(KCIA)에서 국수 부문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탁청자 대표는 “인근에 공단 근로자분들이 많이 찾아주실 뿐만 아니라 속초식 메밀막국수의 참맛을 즐기기 위해 멀리서 오시는 손님들도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라며 “손님들에게 정직한 재료로 정성 가득 담은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대덕구 대덕대로 1448번길 121(목상동 867-2) / 042-931-7557
·메밀막국수 1만원, 메밀명태회비빔막국수 1만1000원, 오징어순대 1만8000원, 메밀전병 1만1000원, 메밀만두 8000원, 명태회(한 접시) 1만1000원, 감자옹심이 1만1000원(2인 이상), 들깨수제비(2인 이상) 1만1000원, 메밀떡만둣국 1만원
·영업시간 : 11:00~19:30(5월~9월) / 11:00~15:00(10월~4월)
·브레이크타임 : 15:30~17:00

아늑한 공간과 건강한 디저트의 조화

목상동 컴포트리드



‘공간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닮는다’는 말이 있다. 처음 들어섰을 때 느껴지는 편안함은 단지 고급 자재나 유행을 따르는 가구 때문이 아니라 그 공간을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대덕구 목상동에는 손님들에게 편안한 쉼과 위로의 공간 제공은 물론 쌀가루로 만든 건강한 디저트로 세상과 소통하는 신상 카페가 있다. 목상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골목에 있는 컴포트리드(대표 임호·허나니 부부)가 바로 그곳이다.

지난 3월 28일 문을 연 컴포트리드는 ‘편안함·위로’의 ‘컴포트(comfort)’와 ‘나무·숲’을 상징하는 ‘트리드(treed)’를 합성해 ‘편안한 숲 같은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카페다.

컴포트리드는 밀가루 대신 쌀가루와 아몬드 가루 등을 사용해 ‘글루텐 프리’ 디저트를 매장에서 직접 만들어 판매한다. 여기에 동물성 생크림과 프랑스 고메버터, 자일로스 설탕, 국내산 달걀 등 선별한 건강한 재료를 사용해 단맛은 깔끔하게, 풍미는 깊게 살렸다. 이곳의 ‘어린썩 몽테 쌀 컵케이크’, ‘티라미수 쌀 머들렌’, ‘무화과 컵케이크’ 등 메뉴 하나하나에는 정성이 묻어난다.

허나니 대표는 “저 또한 염증 반응으로 밀가루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해 글루텐 프리 레시피를 연구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다이어트하시는 분들과 글루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고객층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라며 “원재료와 공정 특성상 가격대가 일반 밀가루 제품 대비 10~20% 높긴 하지만, 손님들의 반응이 매우 좋아 큰 보람을 느낍니다”라고 말했다.

사실, 이들 부부가 컴포트리드 카페를 오픈까지 남다른 사연이 있다. 약 11년간 직업군인으로 복무했던 임호 대표가 3년 전 희망 전역을 하면서 이들 부부는 제2의 인생을 설계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임호·허나니 부부는 ‘이제는 좀 의미 있는 삶을 살자’라고 결심하고 제주도로 들어가 지인의 일을 도우며 남편은 쌀 디저트, 아내는 커피를 배우며 새로운 출발을 위해 노력했고, 마침내 남편의 고향마을인 목상동에 컴포트리드를 창업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들 부부는 카페 오픈 과정에서 카페 내부 공간마다 각각의 의미를 담아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소품들을 장식했다고 한다. 커피바는 사랑과 소통의 공간으로, 클래스 앞쪽 소파가 있는 공간은 쉼·안식처의 의미를 담았다고 한다.

제2의 인생길 개척에 나서 이제 막 출발선을 통과한 임호·허나니 부부는 비록 시작은 미약했지만, 큰 목표와 소망이 있다고 한다.

이들은 “창대한 꿈이지만 온라인 유통망을 확보하고 2호점을 개설해 우리 컴포트리드의 디저트를 더 많은 사람들이 맛볼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라고 전했다. 자신들의 꿈을 담은 컴포트리드에 고객들의 꿈을 함께 담아 무한한 동반성장을 그리는 임호·허나니 부부의 새로운 도전에 희망이 넘칠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



허나니 대표

·대덕구 대덕대로 1454번길 19-18 1층(목상동 151-6) / 0507-1479-5315
·피스타치오 가나슈초코릿 마들렌 3700원, 말차마들렌 3600원, 레몬커드마들렌 3500원, 어린썩몽테쌀컵케이크 5600원, 썩크림라떼 5500원, 브리치즈무화과 쌀소금빵 5300원, 레몬커드쌀 마들렌 3500원, 티라미수쌀머들렌 3700원
·영업시간 : 10:00~21:00(일요일 11:00~17:00)
·정기 휴무 : 매월 넷째 주 일요일

발로 뛰는 대덕구의회 ‘현장 속으로’ 구민편의시설 현장점검, 사회복지시설 위문



대덕구의회(의장 전석광)는 지난9월29일 주요 구민 편의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제289회 임시회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현장방문은 오정대화근린공원과 석봉복합문화센터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구의회는 우선 오정대화근린공원을 찾아 하자 보수 현장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한편,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향후 관리 계획 등을 청취했다.

구의회는 이어 석봉복합문화센터로 이동해 역시 하자 발생 시설물 등을 점검하고 구민의 이용 편의 증대를 위한 개선 방안과 함께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앞서 구의회는 지난 3월과 지난해 3월 각각 이들 시설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해 이용 편의 증대와 안전관리 미비점에 대한 보완을 주문한 바 있다.

이어 구의회는 지난 9월30일 민족 고유 명절 추석을 맞아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했다.

전석광 의장을 비롯한 양영자·김기흥·박효서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이날 노인요양시설인 대덕요양원과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로템을 각각 찾았다.

구의회는 이들 시설에 위문품(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하는 한편, 입소자들과 덕담을 나누고 안부를 살피는 등 명절 인사를 했다.

또 시설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기고



‘안심 승하차존’ 작은 변화가 큰 안전을 만든다

유승연 의원

아침마다 학교 앞은 마치 작은 전쟁터 같다. 걸어서 등교하는 아이들과 차량으로 아이를 등교시키는 부모 그리고 통행하는 일반 차량이 뒤엉켜 부딪힐 듯한 위태로운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제도가 바로 ‘안심 승하차존(어린이승하차구역)’이다. 안심 승하차존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아이들이 차량에서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5분 이내로 주정차를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대덕구에는 63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 중 19곳만이 안심 승하차존으로 지정돼 있으며, 실제로 설치된 현장을 살펴본 결과 여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첫째는 시인성이다. 안심 승하차존임을 알리는 시설물은 표지판 하나뿐이고, 운전자가 확인할 수 없는 위치에 설치된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은 운전자가 안심 승하차존임을 바로 인식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는 장소이다. 일부 안심 승하차존은 방호울타리와 맞닿아 있어 등교를 위해 차량에서 내린 아이들이 차로로 몇십 미터를 걸어가야

인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는 하교 시에도 동일하다. 그 결과 바로 인도로 올라가도록 학교 앞이나 횡단보도에 차량이 정차하면서 아이들은 위험천만하게 차량 사이를 지나가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표지판 설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운전자가 안심 승하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노면에 노란색 도색 및 ‘안심 승하차존’ 표기, 승하차 허용 시간 안내표지 등을 통해 시인성을 높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등 시설물 개선을 통해 차량과 아이들의 동선을 분리해야 한다. 동시에 시민들이 안심 승하차존 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동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구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 현재 법령 외에는 ‘안심 승하차존’의 설치 기준과 운영 방법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지자체마다 제각각 운영하면서 안전성과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라도 안심 승하차존이 제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안심 승하차존의 설치 기준 및 운영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자체는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병행해야 한다.

아이들의 안전은 멀리 있지 않다. 바닥의 노란선 하나가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고, 작은 변화가 모여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낸다.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것은 단지 규정이 아니라 아이들이 웃으며 학교로 향할 수 있는 평범한 하루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제289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조대웅 의원 “다가온 하자 문제 조속히 해결해야”



조대웅 의원(국민의힘, 비례·송촌·중리동)이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신탄진 다가온(다가온)’의 하자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다가온은 지난해 10월 입주 뒤 현재 200여 세대의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이 거주 중인데, 1년도 되지 않아 곳곳에서 빗물이 새는 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천장 에어컨에서 물이 계속 떨어져 침대에 바가지를 놓고 물을 받기도 했다”면서 “관리사무소와 시공사는 하자 문제를 두고 서로 관리와 책임을 떠넘겼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가온은 대전도시공사 소관이지만, 신탄진 지역명이 들어가 있고 우리 구민들이 살고 있다”면서 관리·감독 체계 전면 점검,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에 공식 개선 요구와 종합 보수 계획 협의를 주문했다.

유승연 의원 “안심승하차존 현실은?”



유승연 의원(무소속,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심승하차존’에 대한 실효성 강화를 주문했다.

유 의원은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5분 이내 주정차를 허용하는 안심승하차존은 지역 63개 어린이 보호구역에 19곳만 지정돼 30%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곳들조차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 안심승하차존에 대해 부족한 시인성과 부적절한 지정 장소 등 개선점을 거론하며 “이름 그대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인데, 단순히 표지판을 세워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선 사항으로 “안심승하차존임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노면 표기·도색, 승하차 허용시간 표기 의무와 함께, 방호울타리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효서 의원 “교제폭력, 지자체가 팔 걷어야”



박효서 의원(더불어민주당,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교제폭력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책무를 강조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교제폭력과 스토킹은 개인 간의 사적인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의 문제”라며 “우리 지자체 권한과 자원을 총동원해 피해자가 보호받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난해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골자로 조례를 발의 했지만, 과연 이 조례가 현장에서 얼마나 제대로 이행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제폭력 등에 대한 지자체 책무로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 안전망 구축 △피해자 보호와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 △사후 관리와 재발 방지 노력을 제안했다.

양영자 의원 “비효율·관행적 당직 근무는 그만”



양영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공무원 당직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현 당직 제도가 비효율적이고 관행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양 의원은 “대덕구 공무원은 구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평일 야간과 주말(주야)에 직원 3명이 당직 근무를 수행한다”며 “민원 상당수가 긴급 상황이 아니고, 약 80%는 당장 처리가 불가능해 다음날 또는 월요일에 담당 부서에서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당직은 피로 누적을 야기하고 다음 날 대체 휴무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장기적으로는 조직 전체의 업무 효율성과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민원 응대 시스템 도입 △재난·긴급 상황 대응 시스템 강화 △시설물 관리·보안 시스템의 현대화 등의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김기흥 의원 “공공기관 2차 이전 선제 대응 필요”



김기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정·대화·법1·법2동)이 연속혁신도시의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선제 대응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10대 공약 중 4순위로 전국 5개 초광역권 조성 and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명시해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덕구는 공공기관 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전시와 협력해 전략적 포지셔닝에 따른 선제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전략은 △대덕특구 인접이란 연속혁신도시의 위치적 강점을 살린 최첨단 과학기술 특화기관·기업과의 연계 △공공기관 이전 직원에 맞춤형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도입 △시민사회·학계·재계·여야 아우르는 ‘이전공공기관 대덕구 범시민 유치위원회’ 구성 등이다.

사진뉴스

대덕구의회 행복위-학부모 간담회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승연)는 지난 9월17일 석봉 복합문화센터에서 대화초 등 10개 교가 포함된 동부1지구 초등학교의 운영위원들과 안심 초등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대덕구기관장협의회 김선수 북대전세무서장

국세청은 지난 1966년 3월 개청 이래 59년간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으로 국가 재원의 안정적 조달과 경제적 취약계층을 따뜻하게 보듬는 복지 세정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친(親) 납세자 세정 ▲기업 하기 좋은 세정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국세행정 전 영역에 걸쳐 'AI 대전환'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덕라이프 편집자는 김선수 북대전세무서장을 만나 국가 재원 조달 중요성, 성실납세 지원 서비스, 납세자 권익보호 정책, 지역 상생협력 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Q. 북대전세무서의 관할지역과 담당업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신다면?

대전 북부권의 인구·경제 성장과 세정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2014년 4월 개청한 북대전세무서는 유성구와 대덕구를 관할하고 있으며,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2021년 7월 유성구 죽동 신축 청사로 이전했습니다. 북대전세무서의 2024년 세수 규모는 총 3조 6000억원에 달하며, 대전 지방국세청의 1번지 세무서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153명의 직원이 국세 세입예산의 안정적인 조달과 질 높은 납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Q. 오랜 기간 세무 공직의 길을 걸어오셨다. 서장님이 갖고 계신 세정지론(稅政持論)을 소개해 주신다면?

우선,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으로 국가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을 따뜻하게 보듬는 복지 세정으로 서민 경제를 지원해야 합니다.

또, 악의적인 탈세에 엄정하게 대처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한편,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는 국민에게는 든든한 조력자로서 AI를 통한 세무 상담, 지능형 홈택스 등 최대한의 성실납세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세수 확보에 주력해야 합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민과 함께하는 국세청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Q. 2025년 1월 부임 이후 중점적으로 펼치고 있는 세정 활동을 소개해 주신다면?

국가 재원 조달이라는 국세청 본연의 징수 업무 외에도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편리한 세무서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차에 어려움을 겪는 내방 납세자를 위해 민원인 전용 주차 공간을 조성한 것은 물론 민원 업무별 동선을 서로 다른 색상으로 구분해 안내함으로써 민원인이 손쉽게 원하는 창구를 찾아 업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창업보육센터, 전통시장 영세 상인회 등 '찾아가는 현장 상담실' 운영을 통한 무료 세무 상담 운영 ▲영세 납세자 지원제도, 국선 대리인 제도 안내 등 영세 소상공인들과 진심 어린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적기에 파악해 해결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Q. 2023년 12월부터 대덕구 송촌동행정복지센터 1층에 '북대전세무서 대덕 민원봉사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간 성과와 주민 만족도 등을 소개해 주신다면?

김 선수
북대전세무서장



북대전세무서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는 대덕구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대덕구 송촌동에 '대덕민원봉사실'을 개소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각종 민원 증명 발급과 사업자등록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1월·7월)와 종합소득세(5월) 신고 기간에는 본서에서 직원을 파견해 신고도움창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주민의 세금 신고 관련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덕구 소재 세무서 신설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정부의 조직 축소 방침에 따라 수년째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동대전세무서(가칭)가 신설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Q. 대전시와 대덕구 등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 및 봉사 등 사회공헌활동 대표적 사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과 추석에 대덕구 소재 보육원과 노인복지관에 방문해 직원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위문품을 전달했으며, 종리시장 장보기 행사 등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상인들에게 작은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이슈를 공유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Q. 개인적으로 대덕구에 대한 느낌을 말씀해 주신다면?

대덕구는 계곡산과 아름다운 대청호수가 있어 자연경관이 빼어날 뿐 아니라 동춘당, 회덕향교 등 수많은 선비와 충신을 배출한 충절의 고장입니다. 제가 대전에서 보낸 시간은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대덕구는 자연과 전통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도시라 생각합니다. 따뜻한 정이 넘치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Q. 끝으로 대전 시민과 대덕구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대덕구는 수도권과 남부지방을 잇는 철도·도로교통의 주요 요충지로서 대규모 산업단지와 평촌·연축지구 개발 요인 등으로 세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향후 성장 잠재력 또한 높은 지역입니다.

우리 세무서에서는 대덕구 지역 내 다양한 경제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즉시 세정에 반영하는 한편,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는 세정 지원을 통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대전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대덕구지회

1992년 설립돼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앞장... 현재 2420명 회원 활동
박찬진 지회장, 협회 위기에 돌고 2017년 회장 선출 이후 정상화 나서
박 지회장, 사비로 채무 갚아... 투명한 재정 운영 통해 채무 변제 완료
장애인 민원상담사업·대덕구열린장애인쉼터 개소 등 복지 향상 앞장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 아냐... 전국 최우수지회 만들어 갈 것”

박찬진
대전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대덕구지회



2024년 말 기준 대한민국 등록장애인은 263만 100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5.1%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특별하거나 거창한 것이 아니다. 비장애인이 누리는 권리를 장애인도 차별 없이 단순한 동정이 아닌 당연한 권리로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신체적 어려움을 딛고 서로를 보듬어주며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심으로 나서는 이들이 있다. (사)대전지체장애인협회 대덕구지회(지회장 박찬진, 이하 대덕구지체장애인협회)다.

지난 1992년 2월 24일 설립된 대덕구지체장애인협회는 현재 총 2420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박찬진(63) 지회장과 사무국장 등 총 9명의 직원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및 사회 참여 확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의 의식 개혁 ▲사회화 교육 확대를 통한 장애인 자질향상 도모 ▲재활·자립을 위한 여건 조성 및 정책적 제도 개선 제안 등 장애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오고 있다.

대덕구지체장애인협회는 ▲2005년 4월 대덕구 장애인의날 기념식 주관 ▲2006년 1월 대덕구 장애인이송차량 사업 개시 ▲2009년 1월 대덕구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지원센터 개소 ▲2013년 5월 장애인편의시설 전수 조사 참여 등 설립 이후 꾸준히 성장해 왔다.

그러나 대덕구지체장애인협회는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나 좌초의 위기를 맞게 됐다. 대덕구지체장애인협회를 이끌어 가야 할 리더가 부재한 데다 상당액의 채무 및 사무국 직원들의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현실에 모두가 손사래를 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때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우수지회를 만들어 보겠다며 흔쾌히 지회장직을 수락한 사람이 있었다. 지난 2017년 1월 대덕구지체장애인협회 4대 회장으로 선출돼 현재까지 활동 중인 박찬진 회장이다.

박 회장이 취임할 당시 대덕구지체장애인협회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형클어져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그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처럼 인내하며 꾸준히 노력하면 결국 결실을 볼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하나씩 하나씩 정상화의 돌탑을 쌓아갔다.

지난 8년간 자신의 사비로 협회 채무 금액을 줄여가는 희생정신을 발휘한

것은 물론 투명하고 알찬 재정 운영을 통해 지회 채무를 없애는 데 성공했다.

또 ▲2018년 1월 장애인 민원상담사업 개시 ▲2019년 12월 휠체어 슬로프 장애인 이송 차량 교체 ▲2020년 10월 장애인 활동 지원 제공기관 지정 ▲2021년 1월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개시 ▲2023년 8월 대청댐공원 매점 운영 사업 개시 ▲2025년 1월 대덕구열린장애인쉼터 개소 ▲2025년 4월 15일 제45회 장애인의날 기념식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매우 빠른 시간 안에 대덕구지체장애인협회를 안정궤도에 올려놓았다.

박찬진 회장은 “결코 저 혼자만의 노력과 힘으로 이룬 성과가 아니다. 2420명 회원의 단결된 마음, 사무국 직원들의 성실함과 노력, 대덕구의 적극적인 장애인 지원 정책 등이 정상화의 원동력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어느덧 60대 중반의 나이에 접어든 박찬진 회장은 “장애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제 삶의 목표이자 리더십”이라며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원 없이 베풀면서 살고 싶다. 회원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장애인단체라고 해서 후원만 받을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 봉사 단체와 같이 봉사하면서 장애의 벽을 허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그래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구분 없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질 것 아니냐”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또 “저희 대덕구지체장애인협회가 전국 230개 지회에서 최우수 지회가 되는 것이 제 목표다. 대덕구지회 2420명 회원과 그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가을의 계족산을 함께 걸어요 2025 계족산 황톳길 걷기대회

일 시 2025. 11. 8.(토) 09:00 ~ 13:00 / 개회식 10:00
장 소 장동산림욕장 일원 / 식전·개회식: 장동문화공원 잔디마당
코 스 약 9km (장동산림욕장⇄숲속공연장⇄임도삼거리)
참가방법 행사 당일 현장접수 / 선착순 500명 모집
신청방법 만 14세 이상 신체 건강한 자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필수)
문 의 대덕구 문화관광체육과(☎042-608-65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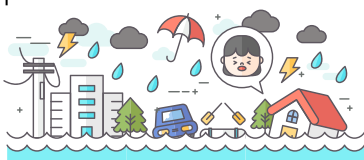
수유 스트레스 탈출, 엄마를 위한 솔루션 모유수유 특강 3기 참여 모집

모집기간 2025년 9월 ~ 모집 완료 시까지
운영일시 2025. 11. 20.(목) 오후 2:00 ~ 4:00
장 소 대덕구치매안심센터 3층 프로그램실 (동춘당로187, 법동)
대 상 지역 임산부 및 수유부(선착순 모집)
내 용 - 모유수유 전문 강사와 함께하는 체험형 강의
- 이론교육(모유수유의 중요성, 관리법, 수유방법)
- 모형 실습(모유수유 자세 교정, 유축기 사용법 등)
- 질의응답 및 일대일 맞춤 상담 진행
신청방법 전화 신청 또는 네이버폼 QR코드 신청
문 의 대덕구 보건소 가정보건팀(☎042-608-5482)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 보장 풍수해 대비해

풍수해·지진재해 보험이란?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국민 누구나 혜택받는 튼튼한 자연재해보험. 장소·원인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 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합니다.
①주택 : 일반 55%~,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78%~, 기초생활수급자 등 87%~, '반지하 주택' 거주자 중 경제취약계층(기초·차상위·한부모가족) 이 아닌 경우 자부담 보험료를 기부금에서 단체가입으로 우선 지원
②온실 : 70%~, 소상공인 상가·공장 55%~
지자체의 추가지원 비율은 해당 광역·기초 자치단체별로 부담 비율 지정(최대 92%)
대상 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안내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판매 민간보험사
-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부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중소기업중앙회(02-6900-3240)
*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회원



2025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미래 아카데미 다둥이 아빠의 리얼 육아 노하우

일 시 2025. 11. 13.(목) 14:00~15:30
장 소 대덕구 평생학습관 다목적홀 (석봉복합문화센터 3층)
접수기간 10. 27.(월) ~ 11. 11.(화)
*선착순으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대 상 청소년, 청년, 성인 등 대덕구민 누구나 200명 선착순
강 연 자 박지현 V.O.S 가수
현)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홍보대사 /
기아대책 홍보대사 / 한국생명의전화 홍보대사
전) 우송정보대학 실용음악과 겸임교수
신청방법 네이버 폼 접수(QR코드 참고)
문 의 대덕구 인구정책과 평생학습팀(☎042-608-6495)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대 상 지역 도심지에 있는 단독주택
내 용 대문, 담장 철거하여 주차공간 확보
기 간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기준 유형별 지원한도액(설치비용 90% 범위 내 지원)

구 분	담장철거(개조)		대문철거(개조)		이웃간경계 담장 철거(개조)	
	직각형 (2.5m×5.0m)	평행형 (2.0m×6.0m)	직각형 (2.5m×5.0m)	평행형 (2.0m×6.0m)	직각형 (3.0m×11.0m)	평행형 (3.0m×11.0m)
최대지원 금액	110만원	150만원	170만원		200만원	

* 추가 주차면수 마다 최대 60만원 추가 지원(최대 2면까지)
* 주차장용도 외 사용금지(보조금사업 설치 후 5년간 용도변경 및 폐쇄 불가능)
문 의 대덕구 교통과 주차시설팀(☎042-608-5295)



비브리오패혈증 함께 예방해요!

비브리오패혈증이란?
해수, 갯벌 등 해양환경에서 서식하는 비브리오 불니피쿠스(Vibrio Vulnificus) 세균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
감염경로
-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덜 익혀서 먹을 경우
-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경우
예방수칙
- 어패류는 흐르는 물에 씻고 85℃ 이상에서 완전히 익혀먹기 (특히 고위험군은 어패류 생식 피하기)
-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과 접촉 금지
- 바닷물 접촉 후, 물과 비누로 노출 부위 씻기
- 바닷물 어패류는 가급적 5℃ 이하에서 저온 저장
- 어패류를 취급할 경우 장갑 착용, 요리한 도마·칼 등은 소독 후 사용
* 간 질환자(만성 간염, 간경화, 간암 등),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으로 특별히 더 주의 필요
문 의 대덕구 보건소 감염병관리팀(☎042-608-4452)